

한스자이델재단(Hanns Seidel Foundation, HSF)은 1967년 설립되었으며, “민주주의, 평화, 그리고 발전을 위한 기여”를 모토로 모든 과제와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재단은 바이에른을 중심으로 한 독일 내부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동일한 강령을 따르고 있다. 지난 35년간 개발지원사업을 수행해 왔으며, 현재 약 60개국에서 100여 개의 프로젝트들을 수행 중이다. 기독교적 토대를 바탕으로 재단의 국제활동은 생활환경 개선과 평화, 민주주의 및 사회적 시장 경제를 강화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파트너와의 협력을 통하여 정치와 교육 분야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파트너의 독립성과 소유권을 보장하고 있다.

프로젝트 관련 문의

프로젝트 책임자

베른하르트 젤리거 박사(Dr. Bernhard Seliger)
Hanns Seidel Foundation
Lazarettstr. 33 | 80636 Munich | Germany
E-mail: Eu_dprk@yahoo.com

본 프로젝트는 한스자이델재단(Hanns Seidel Foundation)이 수행한다. 본 책자에 수록된 내용은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의 의견을 대변하지 않는다.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은 노하우(know-how)와 자원을 공유하며, 유럽 28개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난 60여 년 동안 유럽연합은 문화 다양성, 관용과 개인의 자유를 유지하면서 안정성, 민주주의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고 있다.

또한, 유럽연합은 국경을 넘어 경제통합에서 이룬 성과와 국가 및 국민의 가치를 공유하기 위해 전념하고 있다.”



본 프로젝트는 유럽연합(EU)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진행되고 있다.

유럽연합(EU) 식량안보프로그램

건강한 숲을 이용한 농촌생활환경 개선 — 북한의 지속가능한 산림관리를 위한 교육 센터 설립



본 프로젝트는 HSF와 수행한다.



프로젝트 소개

북한은 과거 산림자원이 풍부했으나 식량증산을 위해 무분별하게 산림을 훼손하면서 산림 황폐화가 가속화되었다. 특히, 1990년과 2005년 사이 산림면적이 20,000km² 이상, 약 25%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FAO, 2005).

한스자이델재단(HSF)의 프로젝트는 북한의 산림복구를 위한 재조림 사업에 기여할 것이며, 산림 벌채의 영향을 받는 농촌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것이다. 본 프로젝트 “건강한 숲을 이용한 농촌생활환경 개선 — 북한의 지속가능한 산림관리를 위한 교육센터 설립”은 지속가능한 장기 산림정책으로 북한의 식량 안보 문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프로젝트 장소

북한, 중국, 몽골, 독일, 벨기에, 핀란드

파트너

국토환경보호성 산하 산림과학원 산림경영학연구소 (Forest Management Research Institute, FMRI)

한스자이델재단(HSF)은 국토환경보호성 산하 산림과학원 산림경영학연구소(FMRI)와 협력 관계를 5년 이상 유지하고 있다. 국토환경보호성은 국토보호 및 관리에 관해 책임을 지고 있으며, 산림과학원 산림경영학연구소는 조림 프로젝트와 산림 현대화 관련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연구 목적

- ▶ 농촌생활환경 개선
- ▶ 북한에 지속가능한 산림 경영 방법 소개
- ▶ 식량안보 증가

본 프로젝트는 황폐지역의 생활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기술적 결함과 부족을 해소하고, 황폐지 내 지역 주민을 위한 식량 안보 증가를 제시하고자 한다.

예상 결과

- ▶ 북한의 지속가능한 산림관리 시스템을 육성할 제도적 체계 설정
- ▶ 임업 기술에 관한 전문지식 확산
- ▶ 북한의 기술 및 과학 카운트파트와 유럽 및 주변 국가 (중국, 몽골)사이의 연락
- ▶ 재조림을 통한 농촌 개발

주요 활동

- ▶ 지속가능한 산림 교육 센터 설립
- ▶ 평안남도 대동군 상서리 내 조림지 80ha 조성
- ▶ 북한에서 국제 및 현지 세미나
- ▶ 중국과 몽골에서 교육
- ▶ 유럽 연수



대상자 및 수혜자

- ▶ 산림과학원 산림경영학연구소 직원
- ▶ 산림관련 기관 및 단체의 직원
- ▶ 지역 및 지방 산림 조직의 직원
- ▶ 북한의 임업 서비스
- ▶ 산림황폐지역의 지역 주민

북한에서의 활동

한스자이델재단(HSF)은 2003년부터 북한의 지속가능한 산림, 유기농업, 탄소금융, 경제발전 및 무역관련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